



보도시점

2026. 4. 26.(일) 11:00  
4. 27.(월) 조간

배포 2026. 4. 24.(금) 16:00

## 케이(K)-디지털 농업으로 동남아시아 소농의 미래를 바꾸다!

- 동남아시아 지역 디지털 농업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 및 공공협의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4월 24일 이틀간 「혁신을 통한 소농의 경쟁력 강화(Digital Roots: Transforming Smallholder Agriculture Through Innovation)」를 주제로 디지털 심포지엄과 공공협의회를 서울과 포천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의 후원 아래, AsiaDHRRA와 Grow Asia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정부 관계자와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농업인 단체와 개발협력기관, 스타트업, 민간기업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여 동남아시아 디지털 농업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 IFAD(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선진국·산유국 중심으로 개도국의 농업개발 및 식량생산 증대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농업분야 국제정책금융기관
- \* AsiaDHRRA(Asian Partnership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in Rural Asia): 아시아 지역 농업인단체 농촌개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농촌 개발과 소농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아시아 네트워크
- \* Grow Asia(Grow Asia partnership platform): 세계경제포럼(WEF) 주도로 설립, 정부·기업·농업인 간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시스템 혁신을 촉진하는 다자협력 플랫폼

‘디지털 솔루션을 통한 소농의 경쟁력 강화’(Smallholder Economic Empowerment through Digital Solutions, SEEDS\*) 이니셔티브는 농식품부의 지원 아래 추진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2022년 지원 이후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을 중심으로 농업인 조직이 직접 참여하는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확산하며, 소농 중심의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왔다.

- \* SEEDS: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 소농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기술개발, 사용자 중심 교육, 플랫폼 구축·운영, 도입지원, 정책개선 컨설팅 등 지원하는 ODA 사업

이 사업을 통해 현장에서는 다양한 변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필리핀 오리엔탈 민도르 지역의 한 과수농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기농 비료와 재배기술 정보를 습득하여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향상시켰으며, 또한, 필리핀 지역의 여성 농업인 단체는 전자화폐(GCash)를 도입하고 페이스북을 활용해 제품을 홍보하여 지역공동체의 소득증대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디지털 심포지엄에 참석한 농식품부 양지연 농업통상과장은 “디지털 혁신은 농업을 보다 회복력 있고 효율적이며 포용적인 산업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사업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한 지식교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4월 24일 개최된 공공협의회에서는 디지털 농업 확산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제도적 기반이 집중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데이터 플랫폼, 디지털 공공 인프라, 연결성, 제도 역량 강화 등 핵심과제를 점검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번 심포지엄과 공공협의회를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포용적 디지털 농업 전환을 위한 협력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다. 향후에도 농식품부는 국제사회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 지식 공유를 통해 보다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농업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국제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하종수	(044-201-2061)
		담당자	사무관	임선영	(044-201-2038)